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농촌전도대 내달 1일부터 4일간

전도대원은 청·장년 중심 40명으로 정예화기로

농촌 교회 지원을 위한 농촌전도대 봉사가 올해는 8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4일간 충남 서천 청운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교회는 전도대 조직을 전도팀, 의료·미용봉사팀, 교육팀 등 3개팀으로 하고 참여 인원은 효율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예년에 비해 소수 정예화한 40여명 가량으로 구성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촌봉사대는 보다 실제적이며 현지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전도대 참가자는 봉사가 가능한 전교인이 대상이며 접수는 루디아여전도회와 에스더여전도회 조직을 통해 받을 계획이다.

올해 농촌봉사대의 주제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찬송은 "빛의 사자들" (찬 259장)로 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도위원회는 3명의 담

사팀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서천 청운교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10-6번지 소재 농촌교회이다. 거리는 서울에서 차로 약 3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교인은 현재 남성도 6명, 여성도 14명에 어린이 15명 등 총 35명이 출석하고 있다. 설립된 지 7년 됐으며 4년 전 교회를 신축했다. 인근주민은 약 120세대에 이른다. 교회 뒤편으로 농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다와도 가깝다. 담사팀에서는 현재 교회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담임교역자 강성동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의욕적으로 교회부흥을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서천 청운교회는 우리 교회 농어촌100교회 지원운동의 자매교회로 베드로 제 4선 교회와 바울 제 4선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촌전도를 위한 물품 모집 =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촌전도대 활동과 관련, 전도용품, 의료·미용기구, 생필품 등을 모으고 있다. 접수 및 문의는 사무국.

순례자 컬럼

보람된 삶

모든 사람은 보람있게 살기를 희망한다. 고생을 해도 보람을 찾으려 하고, 일의 성취를 통해서도 보람을 찾고 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일이 성취되거나 진행되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부른다.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는 가치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값지고 고귀한 것과 아름답고 무게있는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람의 척도는 정해질 것이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에게 가치기준을 설정한 이들은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보람을 삼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통해 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종교적 가치 기준을 발견한 이들도 있다.

한 날을 보람있게 사는 이가 일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자.

각 부서 여름행사 한창

이번 주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와 소망부 수련회

17일(목) 사랑부 일일 성경학교와 17일(목)·19일(주일) 3일간 계속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지난 주 개최됐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각각 교회 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중등

부와 고등부가 20일(월) - 22일(수) 2박 3일간 경기도 미금시의 미금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한편 소망부도 23일(목) 대성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다음 달에는 청년부수련회가 개최된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유년부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마28:20)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상득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초등부실)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중등부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선교원(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고등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선교원(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청년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8월 3일(월) ~ 6일(목)	추양수양관(속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소망부	이종윤 목사, 우심화 목사	7월 23일(목)	대성리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이사야 강해

미신에서 신앙으로

이사야 8장 19 - 23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상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니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18절). 무당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분명하고 담대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한 것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묻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2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피조물에게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평강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2.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했습니다(전 9:5-10).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빛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사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곧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망할 것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빛 가운데

됩니다.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21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해마다가 결국에는 지도자에게 핑계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에게 충성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마저도 끊어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니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나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해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19-22)

이중윤 목사



데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제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거슬려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빛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에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빛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가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깊은 밤에 빠진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 무당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이 좇는 사람들 역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포와 비참함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으로 해매며”(21절). 빛이 없는 사람들은 해매게 되어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이 없고 생각의 정함이 없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지도자에게 가면 그 시대는 빛이 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없어지고 혼잡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게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므로 인하여 결국 메시야가 오시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권이 흔들리면 물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어두움에 빠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빛의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력한 존재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신앙을 가지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8 대학부 여름 수련회 보고

나눌수록 늘어가는 은혜

이승헌(대학부/본지 촉탁기자)

“철저히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회생이 부족함을 느꼈다” “생활이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다” “교만한 기도제목 버리겠다”.

9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된 올 대학부 수련회의 마지막 날 ‘은혜나누기’ 시간에 대학부 회원들이 고백한 소감 중 일부다. 경기도 남양주시 대성리 한양수양관에서 열린 대학부 수련회는 교사와 학부모 외에 76명의 대학부 회원들이 참석했다.

첫 날, 비 탓에 온통 물바다였지만 모두 협력한 까닭에 수련회에 필요한 악기와 장비 등 물품을 버스에 실어 교회에서 수양관까지 무사히 옮길 수 있었다. 도착 즉시 개회 예배를 드렸고 곧바로 이종윤 목사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목사님은 새로워지는 것의 의미, 주제, 방법,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영역까지 말씀하셨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새로워져야 하는지 다시 결단할 수 있었다.

저녁 집회 시간. 박귀환 목사님이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한 신앙을 갖춰 세상 중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수가 필요하며 우리가 그 소수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성막기도’를 하며 더러운 모습을

씻어낸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 드렸다. 또 생년별 기도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은혜, 고민 그리고 각자 가진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는 중 보기도드렸다.

둘째날은 새벽부터 묵상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엔 박성현 선생님과 김영미 선생님의 직업과 가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두 분의 경험담을 들으며 성공적인 직업과 직업 생활 그리고 지혜로운 가정과 청년 때의 데이트를 주님께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 수 있었다. 이어 열린 토론회도 열렸다. 저녁 집회시간의 말씀은 ‘거룩한 열정’에 대한 것이었다. 장장 130분에 걸친 말씀을 통해 박귀환 목사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철저히 제거할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2-3시간에 이르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렸다. 그 넘치는 힘으로 새벽 2시까지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은혜나누기 시간을 갖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참여한 지체들이 서로 느낌과 생각을 나눴다. 알지 못했던 지체들의 상황과 아픔, 연약함 등을 함께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했다.

폐회 예배를 드린 후 모두 한 마음으로 서 울로 돌아왔다. 돌아보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고를 하셨다. 우리가 수련회에 전념하도록 음식 등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선생님들이 대신 모두 해주신 것이다.

대학부 몇몇 회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겠다.
- 세상에 빠지지 않게 진실되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생활 잘하겠다.
-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 흔들리는 내 마음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
-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얻었다.
-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다.
-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대학부 동기들이 나의 진정한 동역자임을 깨달았다.
-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학부를 준비시키셨던 것 같다.
- 믿음의 단계를 알게 하심, 의심 사라짐, 길을 보여 주심.
-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다.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영성세미나를 마치고

영적인 분명함이 필요한 때

오광환(집사/제 12교구)

요즈음 광고에 “남자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라는 광고를 자주 듣게 된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고개 숙인 남자, 흠 리스 가장, 거리의 노숙자 등 요즘 세대에 남성들의 어려움을 여기 저기서 보게 된다. 이런 때 남성이,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분명한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서울교회 전도위원회에서는 홍해작전을 승리로 끝낸 다음 주인 지난 7월 2일 저녁 요한선교회, 베드로선교회, 바울선교회, 모세선교회가 연합으로 IMF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남선교회 영성세미나를 가졌다.

요한선교회원들로부터 모세선교회원들까지 100여명이 옥탑식당에서 남선교회 부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통해 공동체 교제를 갖고 남선교회 연합회장인 홍성주 집사의 사회로 세미나 시간에 이종윤 목사님의 영성에 대한 주제강의를 들었다.

영성에 대해 “영성이란 금욕, 자기부인, 자기동일성을 찾는 것,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등 여러 가지 정의를 소개하신 후 “영성을 가진 사람은 첫째, 하나님 중심생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천국 중심생활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나를 다스린다고 믿으며 셋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생활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한 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아울러 사랑이란 믿음과 섬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또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성찬을 행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들려 주셨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가정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서울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것을 확신했다.

아쉬운 한 시간을 마치고 60대 이상의 만형 모세선교회원들로부터 30대 막내 요한선교회원들까지 소개와 찬양과 더불어 다과를 들며 열린 대화와 친교를 나누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온 남자 성도들의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기쁨의 천국잔치를 경험하며 영성을 가진 성도로서의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민대학 참가자 설문조사

“교회의 참모습 보았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의 참석자들은 세미나의 교육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교회에 대해 친절과 사랑의 실천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석자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지난 9일 소자본 창업세미나를 수료한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내용에 대해 전 참석자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50%), 천주교(12.2%)가 62.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7%인 20명이 무교라고 응답했고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도 9.5%(7명)에 달했다. 앞으로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3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무응답이 46%였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추진하는 각종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수신여부에 대해선 80.3%가 예라고 답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이어 개설되는 영입직취업과정 세미나에는 73.6%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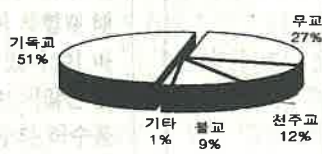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엔 동기부여가 됐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대답이 56.1%, 친절하고 열성적 봉사과 교육에 감사, 감동했다는 응답이 30.1%에 달해 세미나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본 교회에 대한 느낌에 대해선 68.4%가 봉사자들의 친절에 감사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참모습을 보았다 라고 대답하여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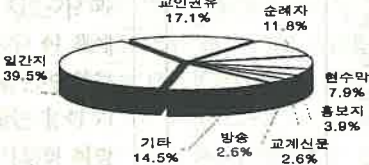
세미나가 교회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민대학 참석 동기에 대해선 동아일보, 순례자, 프랭카드 등 매체를 보고 참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9.3%에 달했으나 교계신문, 세미나홍보지, 방송 등은 9.1%를 차지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교인의 권유도 17.5%를 차지했다.

〈자신의 종교〉



〈세미나 참석동기〉



〈세미나에 대한 소감〉



〈교회에 대한 느낌〉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정책개발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한다. 25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되는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에서 “기독교인의 경제관”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오늘 점심식사는 박두호·한성옥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새로나온 책

신앙컬럼 순례자



이종윤 목사의 '신앙컬럼 순례자'가 새로 나왔다.

수년간 동아일보에 매주 실렸던 순례자컬럼을 모은 이 책은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살아온 필자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잔잔히 사색한 결과다.

필자는 먼저 딜타이가 이해한 바와 같이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체험케 해야 지식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바탕 하에 그는 변하는 사회를 변치않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수와 허수를 찾으려 했다고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는가? 이 책에서 필자는 그 해결책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에 찾는다. 이 기초적인 신앙만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기능성인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말미에 사랑하는 딸에 대한 짧막한 시를 싣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아버지의 따뜻한 입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필그림출판사/ 304면/양장>

■ 교구소식 ■

◇ 김광욱 집사(8교구)는 시대연구사 대표이사로 취임.

◇ 이보우 집사(4교구, 할렐루야찬양대원)는 성신기업 대표이사로 취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동촌전도대 구성과 100교회 운동을 위해
2.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3. 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